

戒를 삼을 사람이요 不飲酒酒로써戒를 삼을지니라.
 만일 滴酒도 不飲하면 本來清淨한 如來藏心이 容
 易하게開發顯露할 것이요 滴酒도 不飲하면 修習한
 功德이 散亂喪失하지 아니할 것이요 滴酒도 不飲하면
 亂을 徹漸에 防杜하지 아니하여 中酒藥功하랴 滴
 酒도 不飲하면 人에 模範을 示하리랴
 以上 殺·盜·淫·妄·酒五戒에 應戒할 理由와 心
 戒할 方法은 印의 上述와 같거니와 어떠한 戒法에야
 能히 已上 모든 戒法을 了解하는 者로 하야 毋 操持不捨
 하야 戒行이 精純케 할가 孔敎의 修身에는 三省을
 貴케 하고 摩西의 十誡에도 祈禱를 重케 하니 眞
 실로 默印함이 없스면 마음에 深入치 아니하고 時習
 치 아니하면 所持를 일키 십나니 그럼으로 學者들은
 己上五戒에 甘마다 隨時隨處에 默默提起하야 하

生活과 佛敎

無窮 金 震 培

五、宗敎와 教育과의 相違

宗敎와 教育과의 相違點은 後者는 人類의 智識을

중에 反하야 前者는 人類의 智識을 用한다 即智識을 用
 다함은 먼저 智識의 發達과 科學을 가르침이요 眞

을 用한다 함은 佛敎에서 解脫을 用한다 함이다 解脫에 對
 하야 佛敎자면 印度「요가」(योग)의 學說은 上善(善
 法)의 學說(學派)의 說에 依하면 一切二邊을 遠離하고
 順逆境에 不轉하면 이것이 解脫의 人이며
 또 平等의 智眼을 열어 眞理一切衆生을 覺하고 精
 神을 統一하는 者는 解脫의 人이라
 即吾人들은 成佛解脫이 된다는 堅固한 信仰만 있
 스면 如何한 境遇에 있술지라도 조금도 부끄러워하
 고 겁내일 必要가 없다. 他人의 毀譽褒貶를 顧慮함은
 自己現在만을 생각함으로 쓰다. 一行爲가 一時에는 世
 上에서 非難을 받는다 亦도 잊지만은 將來에는 반듯이 社
 會公共利益이 될 時機가 있스리라 하는 確信이 있따 하면
 王永久한 確信力이 있다 할지라도 世上에 利益을 줄이
 라는 自信이 있다 하면 조금도 毀譽褒貶를 생각할 必要
 가 없는 줄로 생각한다. 우리 人類는 恒常에 生을 志願
 하고 死를 恐怖한다. 그러나 眞理도 알지 못하여 人
 와 非人생각을 가질 사람은 아직 因果理法에 昧한 사람
 이라고 하나 할 수 없다. 우리 佛敎의 本性은 永久로 導滅亡
 함이 아니나. 일로는 그러면 生死輪廻에 對하야 引用코
 저한다.

印度의 「베다」時代에는 生死輪廻思想이 아직 成
 立이 아니 되었었다. 그럼으로 同時代에서는 人類의 生
 死는 但只一回만 있다고 思惟하고 神의 長生을 冀
 望하고 輪廻를 解脫할 希願은 要求치 아니하였었다. 善
 人은 死後「야마」(Yama)에 依하야 天國에 引導
 되야 長生不死의 享樂을 받는다 고 할에 不過하였었다.
 (印度宗敎文學綱要二二頁)
 靈魂轉生說의 萌芽는 「우파니샤트」에서 發生되야 後
 에 또 이에 附屬說明을 한 것이 「우파니샤트」이다. 이
 것은 哲學的 思索을 用한 不少한 「우파니샤트」의 年
 代로 말하면 「마크스·유·델」은 大略西紀前七百年
 이라고 한다. (마크스·유·델 印度六派哲學四頁)
 그런바 輪廻轉生說의 濫觴은 最初에 「사라피다」에
 서 爲始한 것인바 所謂正智見을 가지고 犧牲을 神의
 代價獻하는 者는 死後不死의 生命을 받고 不然한 者
 는 死後幽界에 生하야 復死한다. 復生하야 復死된다.
 이와가치 生死相續한다고 하였다. 「우파니샤트」는
 此說을 받아 가지고 死後幽界에 再生한다고 力說하였었다
 (마크스·유·델 佛敎文學史二二四頁)
 이렇므로 우리 佛敎의 眞我는 不生不滅하며 肉身은 四

야 吾忘失치 안케 하랴. 其心不殺을 誓願하되 一切衆
 生에 對하야 恭敬·愛護·救助·教化할 마음을 常存
 하랴. 其心不盜를 誓願하되 我身과 我所有者에 對
 하야 歡喜布施·盡量捨與의 마음을 常存하랴. 其心
 不淫을 誓願하되 我身과 我所欲者에 對하야 永遠
 斷離微細愛戀의 마음을 常存하랴. 其心不妄을 誓願하
 되 一切時·一切處에 勤求佛法·饒益衆生의 마음을
 常存하랴. 不飲酒酒를 誓願하되 一切時·一切處에
 嬉笑·散亂·放逸·懈怠·忿怒·憍慢을 遠離할 마음
 을 常存하랴. 恒常이 理趣로써 마음에 體認하고 行
 事에 實踐하랴. 眞實로 이리케 하면 可히 五戒를 眞
 미하야 一切惡業을 斷지 遮止하리니 그다 흥에는 大
 乘經典을 廣讀하고 無上佛智를 勤求하면 거의 一切
 功德을 成就하야 一方이 清淨하면 十方이 清淨한 本
 原을 成立하리랴 (三)

大도도다갈入것이다. 不生不滅의信念이긴다던 生을好하고死를恐怖할必要가없다고생각한다. 宗教는實로不斷의生命, 身心力의安心處를永續케할을을이다. 佛敎에서는現像即實在함을說한다. 大乘佛敎의經文은此道理를種種因緣, 比喻를쓰고어不及한것이다. 吾人들의目前에 森森히羅列하여있는바對像은 好나도變化아니할은없다. 春來하면百花가爛漫히開發하고 秋來하면千山에紅葉의바단으로裝飾한다. 이것이現像이다. 現像은이와가치變幻함이不絶하나 그本體即實在은不生不滅이다. 例하면現像은波濤와가르나 本體는水(水)그것이다. 波濤는風의緣에應하여 女波도되고男波도된다. 이와가치千變萬化하지마는 水의本體에잇서서는 毫末만치라도變化함이없다. 雨, 雪, 氷等은 現像의變化이나모다가細川의水에不過한것이다. 그렇으므로現像의實在은 水와波가不離함과가치 决코別物이아니다. 水即波, 波即水이다. 우리가種種의煩惱를 일으킨도어現像에執着함으로써이다. 佛敎에修行은 畢竟이執着을擺脫함을目的함이다. 解脫을求得코져하여야支那王侯들사이에豪華를버리고 唐末로부터五代에亘

하여 佛敎에歸嚮함이不少한바 後唐의莊宗은興化存獎禪師의계, 南唐王李昇은清涼法眼禪師의계, 楚王馬殷는石門獻蘊禪師의계, 吳越王錢鏐는錢清道符禪師의계, 錢俶은天台德韶禪師의계, 永明道潛, 閩王王審知는雪峰玄沙禪師의계, 南漢王劉隱는靈樹如敏禪師의계歸依하였다. (禪學思想史上卷七五四頁)

寒山은佛敎를信하고 無常을力說하여曰
四時無止息, 年去又年來, 萬物有代謝, 九天無朽摧, 東明又西暗, 花落復花開, 唯有黃泉客, 冥冥去不迴, (寒山詩第十七首)

玉帶暫時華, 金釵非久飾, 張翁與鄭婆, 一去無消息, (同上第五十二首)

白髮會應生, 紅顏豈長保, (同上第四十六首), 寒山이佛敎에信仰을알수있다. 寒山도眞生活의享樂을받고져함이아닌가? 永劫에不滅할安心處를即解脫을얻고져하여 宗教中의佛敎를信함이엇다故로우리는 一大事人生問題를解決할수있는佛敎를信仰하고研究하자함이다.

六、宗教的信仰의確立

佛敎에서는空을唱說한다. 大乘佛敎는空觀으로서부

어發達하여 모든大乘佛敎의根柢는空이라는敎理가그重要部分을占領한다. 그러면空觀이란무엇인가? 即모든現像은畢竟空이라한것이다.

寒山는死生을보았다. 徹底히보았습은아니나 凡庸의域은脫하였다 그詩에曰

「欲識生死譬, 且將冰水比, 水結即成冰, 冰消返成水, 已死必應生, 出生還復死, 冰水不相傷, 生死還雙美」

白雪은皚皚히萬物을덮으나 太陽의光을만나면形狀을失한다. 꽃(花)은爛漫히아름답게피었지마는一陣의狂風을만나면泥土에떠러져버린다. 이것을보면白雪이나꽃이나 모두가空이며無이다. 또美人이나醜婦도 一皮를剝離하면美醜의差가없다.空이라고하면 이에迷하고 이에執着하는愚는 何誰든지了解하는바이다. 그러나空 空無는 頑空頑無가아니나無의一面에는有가잇고 空의反面에는不空이잇다. 空即不空이요 有即無이다. 이道理는般若心經中에「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即是空, 空即是色」이라고云云한等 空에對하여巧妙히說한바가잇다. 有意者는研究하여야됨이조라. 이와가치現像即實在, 空即不空의

道理를了得하면 現像에對하여執着心이不起할入것이며 種種의煩惱도不起할入것이다. 現像이千變萬化함은 秩序整然한因果律의理法에依함이이다. 이사이에는毫末만치도不規則함은없다. 모두가正正規則의이다. 善因잇스면善果가잇고 惡因잇스면惡果가온다. 이道理를堅固히信念한다하면 우리는現在境遇가如何히苦痛이되고 또世上에서非難攻擊이如何히酷毒하다할지라도 毫末만치도恐怖할바가없고 平凡히自己의信하는바를敢行할入것이다. 吾人들이世間에서 實踐的生活를하자면 이러한信仰心이잇은後에야 實現이될入것이다. 우리가人類의生命은 極히저르다 그러나 일은바行爲의影響은 멀리萬代後까지미쳐 人類社會向上發展의資가될을로생각하면 如何한逆境에잇다할지라도 坦然히自己本分을다하고 本會公共을爲하여 努力할수있다 實로人類生活의實現은 宗教信仰의賜物인것을알지안호면아니된다. 世上에宗教도만치마는 其中에吾人이最尊最高의宗教도써 世界에자랑할만한 釋尊의佛敎, 信仰의힘이큰佛敎가 歸依할宗敎인줄로생각한다. (未了)